

여성 음주의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 잠재성장계층분석을 활용한 중단연구

유민지, 신예림, 장남, 이수비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FOUR)



연구배경

과거의 음주문제는 성인 남성에게서 주로 기인된다는 인식이 높았지만, 최근 여성의 교육 및 사회경제적 수준 향상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여성의 음주 증가로 인한 음주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여성의 심리정서적 요인과는 차이점을 두어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사회적 성역할, 일-가정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음주 행태가 어떠한 변화궤적 유형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국가차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국복지패널 3개년도(2018-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총 4,615명의 성인 여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여성 음주의 중단적 변화양상을 분류하기 위해 m-plus 8.0을 활용하여 잠재성장계층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분류한 여성 음주의 변화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22.0을 활용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첫째, 여성 음주의 중단적 변화유형을 분류한 결과, 3개의 변화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변화유형은 초기수준과 변화양상을 고려하여 '저수준 감소', '중간수준 유지', '고수준 증가'로 명명하였다. 둘째, '저수준 감소'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분류된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주관적 건강의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와 사회적 친분관계가 좋을수록 '저수준 감소' 집단 대비 '중간수준 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정폭력을 경험할수록 일-가정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성역할 인식이 개방적일수록 '저수준 감소' 집단 대비 '고수준 증가'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음주의 변화패턴



	저수준 감소(ref) - 중간수준 유지			저수준 감소(ref) - 고수준 증가		
	Exp(B)	신뢰구간		Exp(B)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하한	상한
연령	0.955***	0.947	0.963	0.934***	0.922	0.947
종교	0.768**	0.641	0.920	0.605**	0.451	0.812
교육수준	0.833	0.666	1.043	0.586**	0.418	0.820
직업상태	1.739***	1.441	2.099	1.376*	1.028	1.843
배우자유무	0.810	0.512	1.283	0.437*	0.221	0.865
로그공동화소득	0.997	0.616	1.615	1.216	0.591	2.503
만성질환유무	0.957	0.766	1.196	0.765	0.532	1.099
우울	0.834	0.634	1.097	0.673†	0.437	1.035
주관적 건강	1.291***	1.132	1.472	0.966	0.792	1.178
가족관계	0.814*	0.687	0.965	0.942	0.721	1.231
가족수입만족	0.952	0.852	1.063	1.101	0.923	1.314
주거환경만족	0.913	0.798	1.046	1.113	0.893	1.388
여가생활만족	1.143†	0.995	1.312	0.845	0.690	1.035
사회적 친분관계	1.237*	1.011	1.512	1.337†	0.976	1.831
가정폭력경험	1.261	0.871	1.826	1.839*	1.087	3.111
일-가정스트레스	1.109	0.969	1.270	1.307*	1.061	1.610
성역할인식	0.916	0.742	1.132	0.714*	0.516	0.987

†p<0.1, *p<0.05, **p<0.01, ***p<0.00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기 수준이 위험음주이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 군의 수준으로 증가하는 '고수준 증가'는 가정폭력과 일-가정 스트레스, 사회적 성 역할 등 여성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주요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여성 음주의 변화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의 문제음주의 임상적 개입 이외에 예방 교육과 여가, 문제해결, 스트레스 대처 등 관련 교육 등의 다양한 개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PTSD 측면에서 가정폭력, 일-가정 스트레스, 성역할 등 전통적 성규범으로부터의 간극, 차별 측면에서 여성의 위험한 음주를 예측하고 사회복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